

# 독립된 정보시스템간 정보공유를 위한 지원시스템개발

박홍수\* · 장중순\*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 Abstract

빠르게 변화는 시장상황과 더불어, 고객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고급화되어지는 가운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방대한 기업의 사내·외의 정보에 대한 일관된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기업에서는 기업 내·외부적인 여러 가지 환경 변화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정보들을 전사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된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통합된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기업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통합된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통합된 정보시스템이 아닌 기업업무의 일부분만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각 정보시스템간의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지만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정보입력의 중복성, 정보관리의 비효율성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통합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연구와 시도가 있어왔다. 통합된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존의 단위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들을 수정하여 통합된 정보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의 정보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기업정보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의 정보시스템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새로운 통합된 정보시스템을 새로 개발하여 도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막대한 기업의 자원을 요구하고, 기존의 정보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기업정보를 포기해야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사용된 정보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다른 정보시스템들로부터 정보입력이 가능하거나 정보가 교환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보시스템들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서 정보시스템간의 정보공유를 도와주는 지원시스템을 사용하는 형태의 반-통합시스템의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시스템을 수정하지 않고 정보시스템간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정보시스템의 입력되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원시스템은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데이터가 입력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지닌 소프트웨어 모듈은 에이전트라 할 수 있다. 지원시스템은 정보시스템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정보시스템에 데이터가 입력되는 순간을 알 수 있고, 입력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구해올 수 있다. 지원시스템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수정하지 않고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 다른 정보시스템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반-통합시스템은 이러한 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독립된 정보시스템간의 정보의 공유를 도와주는 형태이다. 반-통합시스템의 장점은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보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기업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정보시스템간의 정보공유가 자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